‘이소연 기념관’ 건립 추진

〈한국 첫 우주인〉

우주체험관 겸비한 복합관 형태
광주시 李씨 우주복 구입 등 나서

광주시가 광주 출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과 우주체험관 건립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23일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던 이씨의 우주활동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에게 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가칭 ‘이소연 기념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소연 기념관이 건립될 경우 우주과학 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첨단 과학도시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우선 이소연 기념관을 우주체험관 기능을 겸비한 복합관으로 건립하고, 천문학에 관한 연구와 천상을 관측할 수 있는 국립천문대 수준의 천문대를 건립하는 등 우주 과학의 산실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우주체험관이 건립될 경우 이소연씨가 입었던 우주복과 초파리를 이용한 중력반응 및 노화유전자 탐색 실험 결과물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씨가 우주에 가져갔던 김치, 된장국, 고추장 등 한국 우주식품 10가지 등도 선보인다.

또 이소연 전시관에는 이씨가 탑승했던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TMA-12호의 모형과 우주 과학의 발달사를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을 전시, 체험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이소연씨가 우주탑험 때 입었던 우주복의 구입을 타진하는 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과 기념관 입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 일각에서는 이소연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소연 기념관 건립은 광주에 우주과학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념관이 세워지면 외지인들의 방문도 잇따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시 동구는 23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200여명을 초청해 ‘제5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 설명회’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예술 행사 청소년 참여를”

초중고 교장 200명 초청 충장축제 설명회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는 23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200여명을 초청해 ‘제5회 추억의 7080충장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구는 이날 설명회에서 충장축제 기간 동안 초·중·고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퍼레이드와 그룹 공연, 소망터널 작품설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이 같은 계획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충장축제가 열리는 오는 10월 7일부터 6일간을 문화예술체험 현장학습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명 청장은 설명회에서 “2008충장축제에서 청소년과 장년층이 교감할 수 있도록 추억과 현재를 조화시켜 나가겠다”며 “도시의 역사를 소재로 한 특성을 살려 교육적 가치가 있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자녀 “회사원 선호” 부모 “공무원 최고”

노동부 세대간 직업관 조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은 자신의 직업으로 회사원을, 부모 세대는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부모-자녀 직업관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일반사무직 회사원(14.3%), 일반 공무원(11.3%), 엔지니어(7.8%), 교사(7.7%), 언론인·방송인.연예인(5.8%), 자영업(5.7%)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반면 부모 세대의 대답은 일반 공무원(23.2%), 일반사무직 회사원(12.2%), 교사(8.0%), 엔지니어(6.6%), 의사(6.0%), 자영업(4.0%) 등의 순이었다.

직업선택시 고려 요인으로 청년층은 ‘적성과 소질’(46.6%)과 ‘고용보장’(16.6%)이 큰 격차를 보인 반면 부모 세대는 ‘적성과 소질’(39.8%) 못지않게 ‘고용보장’(32.2%)도 높게 나타나 부모 세대가 청년층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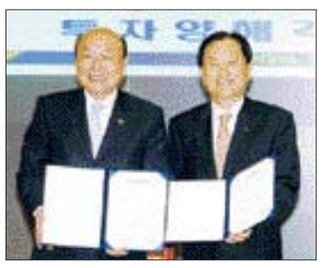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미디어리서치가 노동부의 의뢰로 자녀가 있는 50~65세 남녀 500명과 직업이 없는 19~2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신한생명 콜센터 유치

투자양해각서 체결…내년까지 200명 채용

광주시가 신한생명보험(주)의 콜센터를 유치, 2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신한생명보험(주) 서진원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 콜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



신한생명은 다음달까지 KT 북광주지점 8층에 60석 규모의 콜센터를 조성, 올 연말에는 120석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200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신한생명보험 측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본사를 방문해 지역의 우수한 콜센터 인프라를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쳐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광주에는 28개사 6천390석의 콜센터가 가동 중인데 광주여상과 송원여상 등 실업계 고교 2곳에 전국 최초로 콜센터 관련 학과 개설을 추진중이어서 콜센터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지하철 명예역장
광주시의원 업무체험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23일 광주시의회 이정남 의원(민주·광산3)을 일일 명예역장으로 위촉, 역업무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 명예역장은 이날 송정리역에서 공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역사 순회 점검과 질서 계도, 이용 승객 안내 등 역장 업무를 수행하며 지하철 서비스에 대한 민심을 청취했다.

명예역장제는 지역의 대표 인사가 지하철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면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지하철 서비스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후식기자 who@

전남대 ‘교육지표’ 선언 30돌 심포지엄

전남대는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3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오후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은 1978년 6월 27일 전남대 송기숙, 명노근 교수 등 11명이 당시 박정희 정권의 교육이념이었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선언문으로 당시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교육지표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되짚어 보고 기념문집 발간, 조형물 건립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황병주(국사편찬위 편사연구실) 위원의 ‘박정희 정권의 지배담론’, 성공회대 김호현 교수의 ‘박정희 정권기 지식인민주주의운동과 저항담론’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청소년 56% “6·25 발발 연도 몰라”
60% “전쟁나면 앞장서 싸우겠다”

안보·안전의식 조사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6·25 전쟁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안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전통 우방인 미국, 일본을 꼽을 정도로 안보개념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 전국 중·고교생 1천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25 전쟁의 발발 연도가 1950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6.8%나 됐고,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48.7%에 그쳤다.

또 ‘최근 북한의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 위협을 느끼냐’는 질문에는 55.8%가 위협적이라고 답했지만, 북한이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64.2%가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28.4%), ‘일본’(27.7%)에 이어 ‘북한’(24.5%)이 세번째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쟁, 대규모 테러, 재해.재난 등의 국가 위기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응답이 85.4%에 달했고, 구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앞장 서 나가 싸우겠다’는 응답도 60.7%나 됐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69.8%가 ‘찬성’했으나 63.1%는 ‘향후 10년 이내에 통일될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연합뉴스